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햄핑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www.hpddynastycc.co.kr 080)320-7700



지구촌 최대 축제 카운트 다운 “준비 끝났다, 오라 친구들이여”

‘하나의 삶’ 주제... 7월 28일 화려한 개막

204개국 1만500여 선수들 금 302개 놓고 경합

4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대축제’가 마침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이 한국시간으로 7월28일 오전 5시(현지시각 7월27일 오후 9시) 영국 런던 북동부 리벨리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하나의 삶(Live As One)’을 모토로 내건 런던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사상 최초로 한 도시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이다. 영국의 수도인 런던은 1908년(제4회)과 1948년(제14회)에도 올림픽을 개최했다. 1948년에 열린 런던올림픽

은 한국이 광복 이후 처음으로 태극기를 앞세워 입장했던 대회다.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지만 7개 종목에 67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전 세계에 ‘KOREA’가 독립국임을 알렸다. 이번 대회 마스코트는 금속성 소재로 된 가상의 캐릭터 ‘웬록(Wenlock)’이다. 영국 중서부 슈프셔의 작은 마을 ‘머치 웬록’에서 이름을 따. 근대올림픽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은 19세기 머치 웬록에서 치러지는 경기를 보고 올림픽을 창안했다고 한다. 외눈박이인 웬록의 머리는 런던 태

시 지붕의 등을, 손은 올림픽 주경기장 지붕을, 눈은 카메라 렌즈를 본떠 만들었다.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LOCOG)는 이번 대회에 전 세계 204개국에서 1만500여 명의 선수와 5000여 명의 임원, 2만여 명의 취재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조로운 대회를 위해 22개 경기장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해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런던올림픽 성화는 지난 5월10일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의 고대올림피아에서 채화됐다. 그리스에서 1주간의 봉송을 거친 성화는 5월18일 특별기편으로 영국

으로 이송돼 70일간 아일랜드를 포함해 1만3000km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올림픽 개최에 93억 파운드(약 16조7000억원)를 투자한 영국 정부는 테러 방지와 안전 유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안전유지 비용으로 5억5300만 파운드(9960억원)를 투자했다. 70억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이번 대회에는 26개 종목에 총 30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한국선수단은 7월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결단식을 한다. 본진은 개막 1주 전인 7월20일 장도에 오른다. /연합뉴스

한국 ‘金10·톱10’ 양궁·태권도에 달렸다

수영 박태환 2연패 도전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처음 참가한 올림픽은 1948년 런던 대회다. 당시 7개 종목에 67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역대 마들급의 김성집과 복싱 플라이급의 한수안이 동메달을 획득해 59개 참가국 중에서 종합순위 3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국가별 순위 ‘톱10’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세계 스포츠계의 ‘공룡’으로 떠오른 중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독일, 호주, 주최국 영국 등 6개국이 상위권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7위 이후 순위를 놓고 한국은 ‘영원한 라이벌’ 일본을 비롯해 유럽의 강호들인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경쟁해야 한다. 한국이 ‘톱10’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효자 종목’인 양궁과 태권도에서 순조롭게 금메달 사냥을 해야 한다. 역대 올림픽에서 ‘메달밭’으로 불렸던 양궁은 이번 대회에서 일단 남녀 단체전 석권을 목표로 잡았다. 베이징올림픽에서 4체급 석권했던 태권도는 한국선수단의 최종 성적을 좌우할 종목이다. 최근 태권도는 유럽은 물론 중국과 대만 등의 기량이 급성장해 한국이 금메달 4개를 모두 바라보기는 어렵지만 ‘신에 파워’ 이대훈(웅인대)과 올림픽에 3연속 출전하는 황경선(고양시청)의 발차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수영이다.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1개씩을 목에 걸어 한국 수영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던 박태환(SK텔레콤)은 남자 자유형 400m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유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금메달 종목이다. 김재범(한국마사회)과 양

7월 28일 (토)	8월 2일 (목)	2012 런던 올림픽 한국선수 주요 경기일정
오후 5시~ 양궁 남자 단체전 임동현, 오진현, 김범민 (결승전 29일 02:10~)	오후 5시~ 양궁 여자 개인전 이성진, 기보배, 최현주 (결승전 2일 23:44~)	개막식 2012년 7월 28일 오전 5시 ~ 폐막식 8월 13일 오전 5시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 30분~ 유도 남자 -60kg 최광현 (결승전 28일 22:00~)	오후 5시~ 펜싱 여자 단체 플러레 남현희, 전희숙, 정길욱 (결승전 3일 02:00~)	8월 6일 (월) 오후 5시~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진중오, 최영래 (결승전 28일 23:15~)
오후 6시 30분~ 펜싱 여자 개인 플러레 남현희, 전희숙, 정길욱 (결승전 29일 02:00~)	오후 5시 30분~ 양궁 여자 -78kg 정경미 (결승전 2일 22:00~)	오후 9시~ 레슬링 남자 그레코 60kg 정지현 (결승전 7일 02:25~)
오후 6시 58분~ 수영 (경연) 남자 자유형 400m 박태환 (결승전 29일 03:51~)	오후 9시 30분~ 배드민턴 (결승) 남자 -100kg 황희태 (결승전 2일 22:00~)	오후 11시 35분~ 양궁 남자 도마 양학선
오후 8시~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진중오, 최영래 (결승전 28일 23:15~)	8월 3일 (금) 오후 5시~ 양궁 남자 개인전 임동현, 오진현, 김범민 (결승전 3일 23:44~)	오후 11시 35분~ 체조 (결승) 남자 철봉
7월 29일 (일)	오후 6시 30분~ 펜싱 남자 단체 사브르 구본길, 원우영, 김정환 (결승전 4일 02:00~)	8월 8일 (수) 오후 5시~ 태권도 남자 -58kg 이대훈 (결승전 9일 06:30~)
오후 5시~ 양궁 여자 단체전 이성진, 기보배, 최현주 (결승전 30일 02:10~)	오후 9시 30분~ 배드민턴 (결승) 혼합 이종대, 하정은	8월 10일 (금) 오후 5시~ 태권도 남자 -67kg 황경선 (결승전 11일 06:15~)
오후 5시~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박민진, 김경미 (결승전 29일 20:15~)	8월 4일 (토) 오후 5시~ 사격 여자 리볼버트럼 강지은 (결승전 5일 00:30~)	8월 11일 (토) 오후 5시~ 태권도 여자 +67kg 이인종 (결승전 12일 06:15~)
7월 30일 (월)	오후 9시 30분~ 배드민턴 (결승) 남자 복식 김민정/하정은, 정정은/김하나	8월 12일 (일) 오전 4시 30분~ 복싱 라이트플라이급 49kg 신종훈
오후 5시 30분~ 유도 남자 -73kg 황기춘 (결승전 30일 22:00~)	8월 5일 (일)	
오전 3시 43분~ 수영 (결승) 남자 자유형 200m 박태환	오후 5시~ 사격 남자 50m 권총 진중오, 최영래 (결승전 5일 20:30~)	
오후 5시 30분~ 유도 남자 -81kg 김재범 (결승전 31일 22:00~)	오후 9시~ 배드민턴 (결승) 남자 단체 이현일, 손환호 남자 복식 이종대, 정재성	
8월 1일 (수)	오후 9시~ 레슬링 남자 그레코 55kg 최규진 (결승전 6일 22:25~)	
오후 5시 30분~ 유도 여자 -70kg 황예슬 (결승전 1일 22:00~)	오후 10시~ 체조 (결승) 남자 마루, 안마 김수면, 김희훈	
오후 6시~ 역도 남자 -77kg 사재혁 (그라운드 1일 18:00~20:00 그라운드 2일 03:00~04:40)	오후 11시 30분~ 역도 (그라운드 결승) 여자 +75kg 정미란	

기춘(포항시청)이 포진한 남자 유도 77kg급에서 금메달을 딴 뒤 어깨 부상에 시달렸던 사재혁은 최근 들어 예전 기량을 완전히 회복했다. 여자 역도의 간판인 장미란도 이제 노련미를 앞세워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한다. 체조에서는 양학선(한체대)이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국제체조연맹(FIG)에서 도마 종목의 최고 난도 기술로 인정받은 ‘YANG Hak Seon’을 실수없이 구사한다면 한국 체조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격에서는 진중오(33·KT)가 남자 50m 공기권총에서 2연패를 노리고 펜싱에서는 남현희(31)가 메달을 안길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이종대(삼성전기)는 런던올림픽에서 정재성(삼성전기)과 짝을 이뤄 남자복식 금메달을 노린다. 이밖에 최근 부진했던 레슬링은 남자 그레코로만 60kg급의 정지현(삼성생명), 66kg급의 김현우(삼성생명)와 정상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과국향 맛집
광주광역시 금수강역시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www.geum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